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김 영 익*, 김 민 철**

〈차 례〉

- I. 동자석의 연구의 이해
- II.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중요성 제고
- III. 동자석의 지물조사
- IV. 지물의 의의를 통한 동자석 설치의 동기
- V. 맺음

I. 동자석 연구의 이해

제주의 조상들에게 제주도는 삼재의 섬이었다. 바람이 많고, 가뭄이 잦고 또한 물이 귀하여 실질적 자연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곳이었다.¹⁾ 게다가 제주의 토질은 각박하여 개간하면 말이 반드시 밟아 주어야 하며, 잇따라 2, 3년 농사를 지으면 이삭이 여물지 않는 등 농사짓기에 알맞지 않다. 또한 농토의 대부분이 밭이다.²⁾

자연의 어려움에 설상가상으로 변방으로서 정치적 어려움까지 겪으니 제주선조들의 삶을 헤아려 본다면 가히 자연과의 그리고 외압과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승의 힘든 삶에서 벗어난 조상들에게 안식을 기원하며 후손이 바치는 영원한 시중꾼이 바로 동자석이다. 과거 서민들의 진솔한 내세에의 염원과 이해가 그대로 녹아있는 조형물이 바로 동자석인 것이다. 조형물은 선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1)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P69

2)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P69

대의 미의식과 그 문화를 배태시킨 시대적인 사상,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자원³⁾이라 이해 한 것처럼 동자석에서 선조들의 삶을 읽을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십여년 전만해도 제주에서 주인의 묘를 다소곳이 지키고 있는 한 쌍의 조그만 석상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문화적 가치 및 독창적 예술성이 채 일반인들에게 인정받아 보호되기도 전에, 이미 발 빠른 수집가들의 요구로 인하여 각지로 팔려나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의 원 목적인 주인의 안식을 위한 시중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동자석은 상당히 드문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제주의 전통 문화의 중요한 자원이라 여겨지는 동자석 원형 자료의 발굴과 보존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약 700여기의 동자석에 대한 사진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돌하르방과 비교한 동자석의 입지 및 의의와 수집된 자료의 지물을 통하여 과거 제주민의 동자석 설치의 목적, 종교적 영향 및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내세에의 염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상징성 제고

1. 현대의 돌하르방의 의미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돌하르방을 꼽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주라는 이름과 거의 동등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도민의 인상을 독특하게 풍겨주는 제주도 민속자료 2호로 지정된 돌하르방은 본도의 주민보다는 외지인, 여행자들의 눈에 더욱 쏠리는 바이고, 각계의 학자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한국의 민속 예술품으로서 멋진 문화적 가치가 있다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현재 제주도를 넘어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물론, 중요한 관광 기념적 상품으로서 그리고 각종 기업체 또는 관공서의 입구를 장식하는 상징물로서, 그리고 주술적 의미를 지닌 수호자로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김영돈은 '유사이래 제주에서 만들어진 제

3)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2003P22.

4)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 해부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1981. P191

품이 이처럼 온 세계에 뻗친 경우가 돌하르방 외에 무엇이 있을까⁵⁾는 말로서 돌하르방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다.

1) 생성시기 및 근본 목적에 대한 고찰

돌하르방의 기원, 목적 그리고 제작 형태의 근원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로서는 1751년 김몽규 목사가 용중석을 만들어 목관아지 앞에 세운 것을 그 초기로 보고 있다.⁶⁾ 용중석이라는 이름은 과거 식자들에 의하여 불려지던 이름으로서, 용중이란 진시황제의 맹장으로, 죽은 후에 그의 석상을 제작, 그 힘을 빌어 적을 물리쳤다는 역사속의 인물이다.⁷⁾ 돌하르방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성목, 무성목, 벽수머리, 돌하르방, 돌영감, 수문장, 장군석, 동자석, 용중석, 망주석 등이 있으며, 1971년 제주문화재 위원회에 의해 "돌하르방"이 정식 명칭으로서 채택이 된 이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⁸⁾

통용되는 돌하르방의 제작 목적을 살펴보자면, 문지기역할, 수호신적인 역할, 고을 안의 사기침입 방지, 악질의 방지, 위치 표적의 역할, 전란의 방지, 고을의 존엄성등을 들고 있다.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돌하르방의 주된 목적은 바로 수호신적인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제작의 시기, 목적, 그리고 위치 및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 따르면 또다른 이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선, 돌하르방이 생긴 근원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1751년에 제주에 흉년이 자주들어 굶주려 주고, 전염병으로 죽은 이가 매우 많았다. 이중에서는 원귀가 되어 생인을 괴롭힌다하므로, 삼문(동,서,남) 밖에 용중석(돌하르방)을 만들어 원귀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⁹⁾ 이것에 대한 풀이로서, 망령들을 위무하는 뜻에서 돌하르방을 새겨 세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¹⁰⁾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그 제작의 근원이 민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자면 원귀가 되어 생인을 괴롭힌다하여 목사 김몽규에 의하여 성밖에 세워

5)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P233

6)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출판사』, 1990(edited), P165

7) 우종구,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연구 "제주 고유의 민속 소재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2003, P10

8) Hunter W.C. "Commodification of Jeju Island's Culture Image: Standing Stones", Island of The World III, 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 Taiwan, 2004, P11

9)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출판사』, P164

10)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P228

졌다는 것이다. 돌하르방의 주된 기능을 설명하는 것 중 하나는 부정한 기운의 출입을 금하는 수문장의 역할에 있다. 문기선은 그의 저서에, '성문의 굽이도는 길목에 세워진 한쌍의 석상 눈초리는 부리부리하게 매서워 관위적인 위엄성을 보이게 하여 출입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 성문을 지키게 하는 경계 수호적 기능이 있다'¹¹⁾ 라고 하였다. 또한 돌하르방이 세워졌던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목 24기, 대정현 12기, 성음목 12기로서 주요 성에만 한정되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크기도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목의 돌하르방은 평균 높이가 181.6cm, 정의현 141.4 cm, 대정현 136.2 cm이며, 제주목의 것이 더 크고 위용이 있게 제작되어있다.¹²⁾ 김봉옥은 외형에서 크기 및 위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목과 현의 관동차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¹³⁾ 이 부분에서 왜 마을 곳곳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성밖에만 세워져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민속신앙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당연히 마을 곳곳에 일반인에 의하여 돌하르방이 제작되고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성안과 성밖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됨 직도 하다.

우선 성안은 각종 관청이 있는 곳이요, 소위 우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것은 성안과 성밖이 경제력의 차이가 크며 양반 대부분이 성안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¹⁴⁾ 또한 관청의 등급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것은 서열, 즉 관의 위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의 내용들로 유추를 하여 보자면 돌하르방은 일반 백성에 의해 제작이 된 서민의 삶, 사상, 신앙을 내포한 민속 예술품이 아니라, 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의 위주로서 제작이된 수문장의 역할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조형물이라는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여 본다면, 김몽규가 내세운 원귀로부터의 보호는 '흉년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많은 성밖 사람들 즉 제주양민의 한으로부터 관청, 성안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라고 결론은 내린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듯싶다.

11)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 해부학적 연구」, P197

12) 우종구,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연구 "제주 고유의 민속 소재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P11

13)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출판사」, P164

14) 연합신문. *우르다는 제주의 방언으로, 사용자에 의하면 "우르르다"와 또는 "권위가 있어 또는 기가살아 큰소리치는"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함.

2) 제주민의 돌하르방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고찰

우종구는 그의 연구에서 '돌하르방은 제주 섬 주민의 역사적인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온 진취적인 인간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탐라의 수호신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였다.¹⁵⁾ 또한 Hunter는 그의 돌하르방의 상업화에 대한 연구에서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문화자산으로서 제주인의 정신과 기질을 반영하고 있다¹⁶⁾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헌의 연구를 통한 개인적 견해로서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상징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의 위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제작물이라는 것에 더 신빙성 있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 제주도민의 삶 속에 돌하르방이 차지하였던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30인의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하르방의 인지도 및 생활에서의 의미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75세 이상 제주 도민 인터뷰 결과

현재 돌하르방의 인지	100% 알고 있음	
처음 본 시기	70%: 35년 이내	30%: 35년 이전
제작 의미	55%: 의미를 모름	45%: 액운을 막음
과거 주술적 활용경험	100%: 전혀 없음	
과거 제주 서민들의 삶과 돌하르방과의 연계성	100%: 별 관계가 없다고 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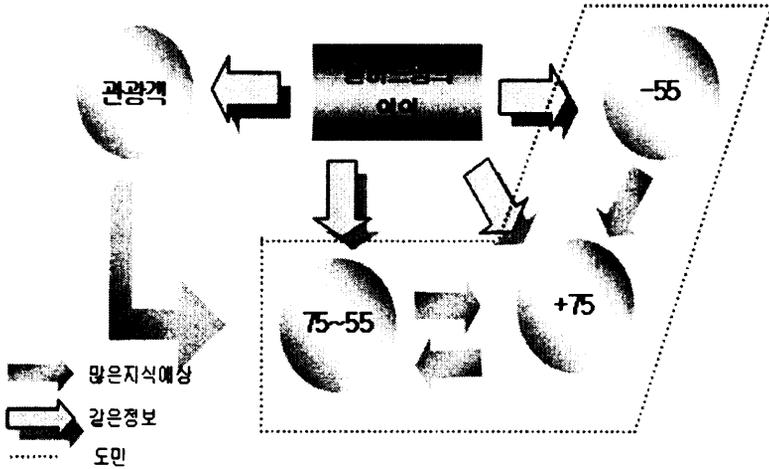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75세 이상 4개 지역 30여명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 것을 분석하여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돌하르방이 차지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70%는 돌하르방을 본 것이 불과 35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또한 55%에 이르는 사람이 현재 까지도 돌하르방의 제작의도에 대하여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였다. 35년 전에 돌하르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9인중 44%인 4인이 그 제작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며, 응답자의 전체가 돌하르방과 관련된 어떠한 주술적 활용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자신들의 삶과 전혀 무관했다고 여기고 있을

15) 우종구,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연구 "제주 고유의 민속 소재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P11

16) Hunter, W.C, "Commodification of Jeju Island's Culture Image: Standing Stones", P1

뿐더러, 일반 서민과의 의미에 있어서도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심지어는 제주시, 대정, 성읍 지역의 거주자들조차 어렸을 때부터 본 적은 있지만,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상의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돌하르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론으로서 는 제주인의 삶을 반영한, 제주인의 삶과 밀접한 중요 상징이라는 일반적 이론에 부합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30명의 인터뷰를 통한 결론 추출에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돌하르방 과 제주도민의 관계를 통한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결 과이다. 돌하르방에 대한 지식의 정도 및 기대치에 따른 간략한 인터뷰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돌하르방에 대한 정보의 기대 현상

위의 그림을 보자면, 관광객들은 돌하르방이 제주민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돌하르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일반적 제주인은 7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돌하르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반면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70년대 초반 관광정책에 참여한 젊은이들 즉 70세 이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돌하르방이 의도적으로 관광 자원화된 상품이며, 그 속에 설명되는 이미지가 관광객의 흥미위주의 내용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볼 수

가 있다. '제주민의 수호신', '제주의 고유 문화유산', '생활 속의 돌하르방' 등 돌하르방을 표현하는 수식어에서 내포된 것은 바로 제주도민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온 서민과 친근한 수호신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홍보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까지 그 홍보 속에 있게 만들었고, 제주도민들도 같이 동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실상 그 누구도 주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은 성공적인 기획 상품으로서 제주를 대표하게 된 이미지로 여기는 것이 옳은 이해라 생각이 된다.

2. 동자석의 의미

동자석은 제주의 무덤가에 한쌍으로 세워지는 약 30~100cm 크기의 사람 형태를 지닌 조형물이다. 일반적으로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조상의 시종을 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자석의 동은 아이 (Child), 종 (Slave)이라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의 동자의 뜻은 남자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⁷⁾ 동자석은 동자석, 동자상, 지신, 무석, 자석등으로 불리워졌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동자석이라 통용되고 있다. 또한 동자석은 귀족적, 권위적 문화의 소산이 아니라, 서민적인 석상이며, 남,녀 구분이 없이 세워졌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¹⁸⁾ 돌하르방과 더불어 독특한 생김새 및 분위기로 인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조형물로 인지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중요한 민속문화자원의 하나로 가치가 인정되어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 생성시기 및 목적

① 시기

동자석의 생성시기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자석이 위치한 묘의 비석에 기록된 사망 년도를 기준으로 그 생성연도를 측정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조상이 사망한지 한참 뒤에 후손들이 동자석 또는 비석을 세우는 예가 많기 때문에 비석의 년도를 정확한 동자석의 생성시기로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된 동자석으로 여겨지는 것은 제주시 화북동 거로마을의 분묘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15C 경에 구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¹⁹⁾ 15C~17C를 발흥기로 삼아, 18C~19C에 융성하게 되며, 이후 점차 쇠퇴기로

17)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P69

18)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 10, 1990, P175

19)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P70

접어들어 20C에 접어들어 그 전통은 단절이 되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목적이나 방식으로 동자석을 제작하는 풍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동자석의 형태를 살펴보면, 돌하르방과 전체적인 분위기 및 단순하며 굽은 선으로된 표현등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으며, 이는 동자석 또한 몽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

②목적

동자석을 조각하여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주민의 죽음에 대한 내세관을 잠시 관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강정효의 글을 보면, '제주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았다'²⁰⁾ 라는 표현이 보인다. 죽은 후에도 오름 등을 중심으로 무덤이 마을 형태를 이루고 있고, 개별 무덤 또한 집 울타리의 의미를 가지는 산담이 있으며, 영혼이 드나드는 문인 신문(神門)이 있는 것에서 그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을 삶과의 단절로 여기지 않는 문화 속에서 즉,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 동자석이라는 시중꾼 석상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접근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동자석의 제작 의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망자를 위로하고, 사후 세계에서의 생활을 배려하는 후손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한 예를 보자면, 동자석은 죽은 자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살았을 때 좋아했던 술, 떡 같은 음식물이나, 꽃, 창과 같은 상징물을 들고 봉분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다 하였다.²¹⁾

동자석의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망자의 영혼의 위로 및 시중꾼으로의 역할의 수행이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산출되고 있다. 김유정이 정리한 동자석의 생성 목적에 대한 정리를 보면, 숭배적 기능(사자를 위해 제례를 행하기 위한 공경), 봉양적 기능(가문의 권위를 알리기 위한 무덤의 치장), 주술적 기능(사자를 달래기 위한 종교적 기능), 유희적 기능(영혼의 벗으로서의 놀이꾼) 등으로 분류가 되어있다.²²⁾ 강창언의 경우 동자석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형상²³⁾이라고 간단명료한 제작목적에의 정의를 내렸고, 그 설립의 사상에는 토속적, 샤머니즘적, 무속적, 불교적, 유교적인 면이 가미가 되어

20) 강정효. 『화산섬, 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2000, P30.

21) www.nfc.co.kr

22)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P171

23)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P173

있다고 보았다.²⁴⁾

2) 제주민의 동자석에 대한 이해

일반 제주민의 동자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 4개 학급 140여명에게 물어본 결과 단 한 명도 동자석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다수의 10대 중반~20대 중반까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동자석 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름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덤에 있는 석상이며 특징은....'라고 설명을 하였을 때, 집안 묘에 동자석이 있는 경우 그것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미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인터뷰는 지극히 간단하게 실행이 되었다. '혹시 동자석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0대 초반의 제주 토속문화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미술전공자이며, 상당한 감명을 받을 만큼의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젊은 층, 즉 35세 이하에서는 명칭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며, 다른 조사자들이 실행한 인터뷰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명의 75세 이상 집중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보게 되면, 1명을 제외한 29명의 응답자가 동자석은 무덤을 보호하고 조상을 섬기기 위한 의도로서 제작된 석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기억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직접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즉 집안일에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시기를 결혼 후 또는 20세 이후로 보았을 시 75세 노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1950년도 이후에는 동자석을 설치하는 일이 상당히 드문 일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상들의 묘에 있는 동자석을 흔히 접할 수 있었으며, 그 설치 목적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석상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이 생긴다는 주술적 기능, 무덤을 장식하여 가세를 과시하기 위한 기능 등의 측면은 실제로 코를 갈아다 먹는 것을 보았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하였고, 세력의 과시 측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작의 핵심 목적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가장 기본적 제작 용도로서 조상을 섬기기 위한 몸종의 제공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조차 주도적 위치에서 동자석 설치를 직접적으로 해

24)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P171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그 설치 목적 및 의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았다. 당연한 귀결로서 그 이해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현재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자신들과 무관한, 석상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3) 동자석의 의의

동자석은 500여년 동안 제주 선조들과 함께 살아오고, 발전해 왔으며, 제주민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그 속에는 휴머니즘이 잘 녹아 들어 있다. 제주를 앞서 설명이 되었듯, 사람이 살기에 윤택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조상의 편안한 안식을 위한 후손들의 염원을 표현하여 동자석을 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소박한 서민의 삶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제작물의 형태로 인한 예술적인 측면이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이 들지만, 수천개의 동자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몇 종류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똑같은 모양의 것은 하나도 없다. 다양성과 예술성은 돌책이(석공)라 불리우는 제작자 개인의 표현 방법과 망자의 특성 및 후손의 염원을 반영하는 특성이 다양성 속에서 생겨 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술적인 측면은 유교에서 벗어난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육지부의 벽수, 문인석, 장수석 등을 보게 되면,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틀에 박힌, 매우 정교한 형태를 보인다. 반면 제주의 경우는 특정한 틀이 없이 개개의 특성을 많이 반영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강창언은 추상적 표현에서의 동자석은 과감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또한 과감하게 생략시켜 버리는 방법을 응용하여 전체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²⁵⁾라고 하였고, 또한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허술하면서도, 미술학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점에서 소외될 수 없는 서민적 작품에 틀림이 없으며 나름대로 완성적이다²⁶⁾ 라고 가치를 부여 하였으며, 김유정은 제주의 동자석은 어떤 석상보다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여 탐라문화를 이어받는 민족적인 돌 조각으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다²⁷⁾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예술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동자석이 가지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바로 평등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이가 다 동자석을 세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실지로 하층 계급 즉 천민이 석상을 설치하는데 사회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

25)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P171

26)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P173

27)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P83

겨진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후손의 의지만 있으면 동자석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창언의 말을 빌리면, '동자석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형상이며, 이와 같은 방법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개 고위층에 한정되어 있다'²⁸⁾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의 동자석은 남, 녀의 구분이 없이 다양한 무덤에서 발견이 된다. 양반, 천민의 구분이 없이, 남, 녀의 구분이 없이 후손의 의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 덕에 서민의 개성이 물씬 풍겨나는 틀에 박히지 않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동자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동자석의 지물 조사

1. 동자석 조사의 현황

동자석에 대한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묘에 위치하여 있는 동자석을 비롯, 목석원, 국립박물관, 용인 세종 돌 박물관, 제주 자연사 박물관, 용인 호암미술관, 제주 목관아지, 제주 대학교 등에서 710여개 실물의 사진 및 주요 특성을 정리한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보에 의하면 이천의 얼굴 박물관에도 수십기의 동자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삼양의 제주 민속박물관 및 제주 유명관광지에 몇 개씩 장식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150여기 이상의 자료가 박물관 및 관광지에서 수집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주의 묘지에 원래의 위치를 지키며 남아있는 동자석 또한 일부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000여기의 동자석 자료를 모집한다면 학술용 형태 분석 및 민속문화자료의 보존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굴범들에 의하여 거래가 되는 동자석은 일본 및 개인 수집가들에게도 많이 팔려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동자석들이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도굴이 되어 현재 제주의 박물관에서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술성이 높지 않은 밋밋한 것들만 남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자료의 조사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 하였으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박물관 및 목석원 등에서 동자석의 의의와 가치를 일찍이 발견하여 수집·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28)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P173

재 자료 수집이 된 동자석의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자료 수집의 결과

장 소	수 량	자료의 현황
개별 무덤가	20기	사진+텍스트형태 분석 자료
제주 목석원	130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민속 자연사 박물관	28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제주 국립 박물관	6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세종 돌 박물관	450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호암 미술관	38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제주 돌 박물관	15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제주 대학교	8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기타 장소	20기	사진+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총계:	715	사진 5000 여장+텍스트 형태 분석 자료

2. 지물에 대한 형태 조사

지물은 동자석의 손에 쥐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밥주걱, 숫가락, 막대기(홀), 새, 칼, 창, 술병 및 잔등 후손이 조상을 위해 배려한 내세에서의 안락한 삶을 기원하는 상징 그리고 망자의 지위, 가문의 위상의 표현으로서 지물을 근거로 제주민의 내세관과 설치 목적을 이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물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 및 관련 사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다양한 측면으로 내포된 의미를 연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물이 지물 본래 그대로의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세속적 경험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 나타나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조사된 지물의 형태는 약 85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중 형태만 다르게 조각이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홀, 창, 밥주걱, 숫가락, 붓, 부채, 술병, 술잔, 꽃, 새, 다이아몬드 형태, 창과 뱀등 10개 종류가 다양한 특색으로 조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조각된 지물들을 보면, 양각, 음각, 크기, 모양, 각도등 실지로 같은 것이기는 하나 고정적 형식이 없이 자유로이 표현 되어있다. 이는 동자석 석상들의 전체적인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가 특색이 제각각인 관계로 특징별 구분 및 정리에 있어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지물의 형태 연구에 있어서는 다행히 그리 많지 않은 종류가 다른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있는 것이므로, 10여개의 주요지물의 형태별로 개수를 분석하고, 각 지물의 의미를 파악하여 동자석의 설치목적 이외에 과연 어떤 것이 제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세의 삶에 있어서의 기원인가 하는 부분을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물의 형태 및 수량 파악

1) 지물의 형태의 수량분석

총 수집된 자료중 480기의 동자석을 분류, 정리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480기의 동자석중 지물(손에 지닌 물건)이 있는 동자석은 384기에 달했다. 이 지물이라는 범위 속에는 '무엇인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지닌 모든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문자도 포함이 되어있으며, 또한 확인할 수 없는 형태가 불분명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조각을 해 넣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 수량에 포함이 되었다.

지물을 가지고 있는 동자석은 384기에 달하였고, 없는 것은 96기 였다. 약 20%는 지물이 없는 동자석이고 약 80%에 달하는 동자석이 지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물을 동자석에 새겨 넣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임을 파악 할 수가 있다. 조사한 동자석 중에 지물을 가지고 있고 한쌍으로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은 296기이며, 쌍이 아닌 것은 88기로 나타났다. 384기의 지물을 가진 쌍으로 이루어진 동자석 중에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같은 지물을 가지고 있는 동자석은 148기이며, 다른 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136기였다.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10기가 있었다.

지물의 형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홀이었고, 그 수가 148개에 달하였다. 다음은 밥주걱이 105개로 뒤를 이었고, 창이 32개, 술잔이 28개, 술병이 15개, 그리고 부채 11개, 붓 8개, 새 7개, 꽃이 6개로 뒤를 이었다. 이 주종을 이루는 지물의 수가 360개에 이르고 그 외의 것이 24개가 되었다. 94%에 이르는 지물이 위에 거론이 된 9개의 목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단지 6%만이 주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표3〉 주요 지물의 종류 및 비율 조사 결과

형태 (모양)	개수	비율(지물간 비율 %)	총비율(전체비율)
홀	148	38.5	30.8
밥주걱(술가락)	105	27.3	21.8
창	32	8.3	6.6
술잔	28	7.3	5.8
술병	15	3.9	3.1
부채	11	2.8	2.3
붓	8	2	1.7
새	7	1.8	1.5
꽃	6	1.5	1.3
총계: 360		총계: 94%	총계: 75%

사실상 구분하기 애매한 표현의 지물이 상당수 되었다. 이는 표현에 있어 정확한 틀이 없을 뿐더러 아주 추상적으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지물을 들고있는 한쌍의 동자석들이 실마리가 되어 주었다. 예를들어 술병은 술병+창, 술병+밥주걱으로 이루어진 세 번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술잔이 짝을 이루고 있었다. 이 술잔의 모양이 섬세한 것부터 음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까지 모양이 다양하게 제작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이런 다양한 모양이 밥주걱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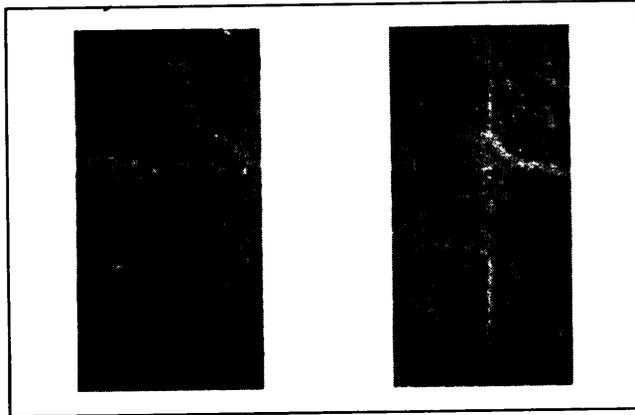
밥주걱의 경우는 밥주걱 + 밥주걱, 밥주걱 + 창, 밥주걱 + 술잔이 술병 + 밥주걱으로 한쌍을 이룬 단 한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쌍을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네모모양의 것은 밥주걱으로 인식이 되었고, 육각형 및 부채꼴의 모양의 것은 술잔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추론의 예를 들어, 좌측의 〈사진 1〉는 밥주걱의 모양과 상당히 비슷하여 보인다.

〈사진1〉 밥주걱 및 창과 유사한 모양의 붓

하지만, 끝이 뾰족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밥주걱의 모양으로는 적합치 않은 측면이 보이며, 이러한 형태의 밥주걱이 발견된 경우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찌 보면 창으로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창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각이 있으며, 여기서는 각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물은 붓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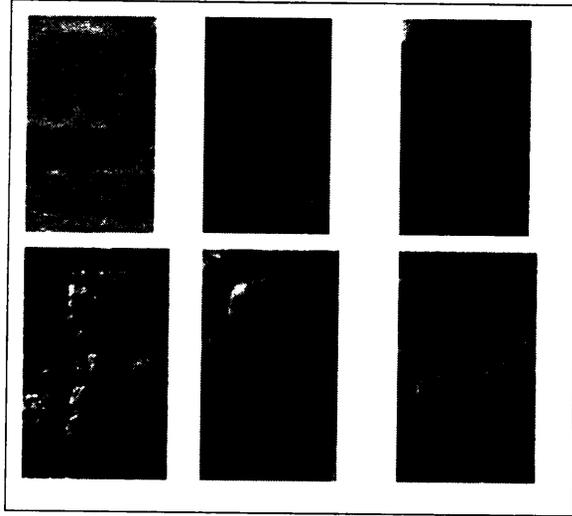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서는 위의 모양이 과연 밥주걱인가 창인가 아니면 붓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런 방법의 추론을 제외하고는 더 확실한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며 깊이가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2) 지물의 분류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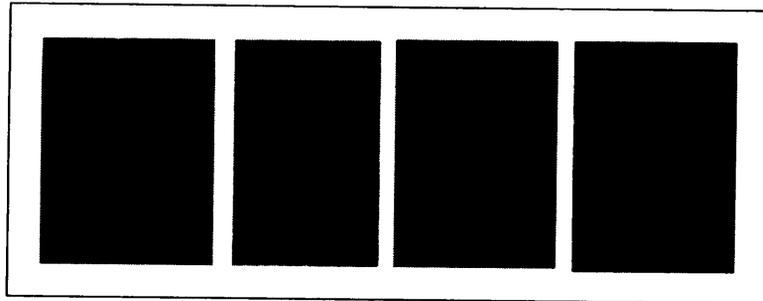
〈사진2〉 흠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흠은 음각이 없이 양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흠을 잡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흠과 다른 지물을 잡은 동자석이 쌍을 이루는 경우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 흠의 형태로서는 위로 살짝 솟아있는 경우와 위와 아래가 다 보이게 쥐고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사진3〉 다양하게 표현이 된 밥주걱(수저)의 모양

밥주걱의 경우를 보게되면, 양각과 음각이 있으며, 머리가 작고 손잡이가 있는 것, 머리가 네모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손잡이가 없이 원으로 표현이 되는 것 등 다양한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진4〉 창을 나타내는 지물

창을 묘사한 지물의 경우도 선명하게 다이아몬드형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삼지창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한 막대형에 끝이 뾰족한 경우 및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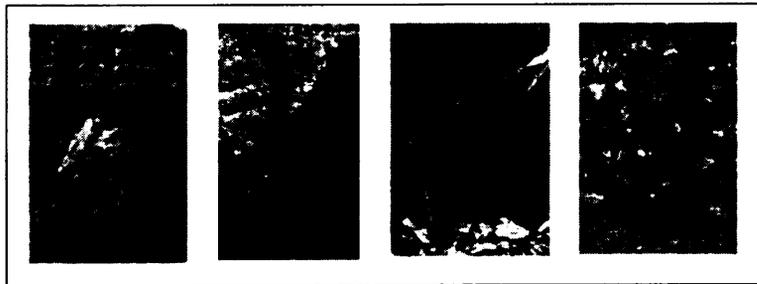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단순한 경우로서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진 경우가 있다. 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붓과의 구분이 되는 부분이었다.



〈사진5〉 술잔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술잔의 경우, 양각과 음각으로 되어 있으며 삼각형, 부채꼴, 실물과 매우 흡사하게 양각으로 잔 받침대 까지 표현된 경우가 발견이 되었다. 술병과 밥주걱이 술잔과 주로 쌍을 이루는 지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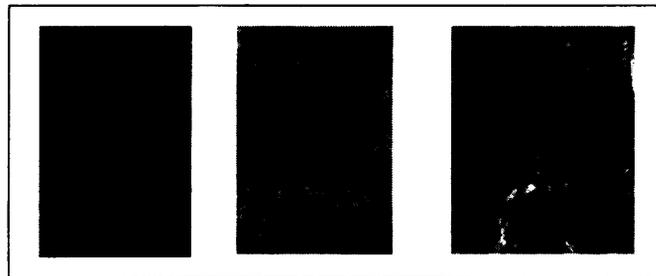
〈사진6〉 술병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술병은 구분이 상당히 용이한 지물로서, 양각 또는 음각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술잔과 짝을 이루고 있다.



〈사진7〉 부채를 표현한 지물의 예

부채 또한 구분하기가 용이한 지물로서, 음각, 양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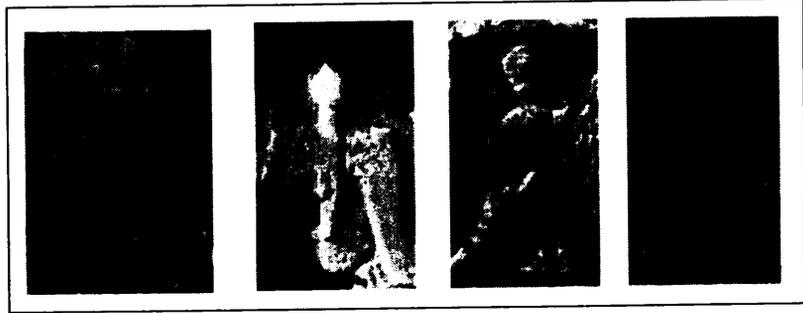


〈사진8〉 새를 표현한 지물의 예

새는 양각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밀한 묘사가 보인다. 오리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 지방은 타 지역과는 달리 솟대 및 방사탑의 새도 오리가 아니라 까마귀라는 설이 있다. 따라서 동자석의 새 모양은 까마귀가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물의 모양으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로서는 정확한 새의 종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진8>의 맨 처음 것을 보자면 꼬리 부분이나 통통한 몸이 오리를 연상시키는 듯 하다.



<사진9> 붓과 꽃을 표현한 지물의 예

꽃의 경우 양각으로 이루어진 사진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붓의 경우는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는 것이 창과의 구분이 되는 특징이다.

IV. 지물의 의의를 통해 이해한 동자석 설치의 동기

일반적으로 동자석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무덤의 구조물 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제주 향교의 고행정은 '동자석이란 기본적으로 유교문화의 산물로서 망자 생전의 사회적 지위나 문·무관으로서의 역할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제주의 절오백, 당오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 특유의 무속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을 수 있다'²⁹⁾ 라고 의견을 표출 하였다. 또한 강창언은 '동자석의 기능에 대하여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상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 졌는데 넓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의미와 자신의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다'³⁰⁾ 라고 설명하고 으며, 세종 돌문화 박물관의 장원섭 학예연구실장은 '동자석은 어린아이를 조각하여 세운 장식물로 조상의 음덕이 자손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³¹⁾라고 그 제작 목적

29) 7월20일 제주향교에서 인터뷰

30)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P173

31) www.traditionkorea.com

을 설명하였다. 제주도 동자석은 형태 및 목적 면에서 육지부의 동자석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으나, 지물의 소지 여부를 보았을 때 문, 무인석의 특징 또한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무인석은 왕릉의 경우 수호의 역할, 일반 사대부 묘의 경우 생전의 문·무관으로서의 역할의 상징 그리고 일정부분 가세의 과시등의 의미가 깃들여 있으며 또한 죽은자의 혼을 위로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 제주의 묘의 경우 문인석과 동자석을 따로 세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서, 동자석에 여러 의미를 통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동자석의 경우는 지물 및 형태를 중심으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유교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닌 문·무인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외 지역의 동자석의 역할과 불교 및 무교나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매체로서의 역할 또한 간간히 발견이 되고 있다.

1. 지물의 의의 조사

1) 홀 과 창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홀(笏)이다. 홀이란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조현(朝見)할 때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패로서 홀기(笏記)의 준말이다. 길이 약 60cm, 나비 약 6cm가 되도록 얇팍하고 길쭉하게 만든 것으로 1~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 5~9품관은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고 향리(鄕吏)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³²⁾ 이는 유교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징물로서, 주로 문관을 나타내는 문인석에 나타나고 있다. 즉 유교사회에서의 문인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 총 384개의 지물을 가진 동자석중 38.5%인 148개 그리고 총 480개의 동자석 중에는 30.8%를 차지하였다.

홀의 형태로서는 손을 배에 대고 위, 아래로 홀이 나오도록 길게 표현이 된 것과 손을 공손히 가슴쪽으로 모으고 그 위로 살짝 홀이 나오도록 들고있는 두가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홀을 지물로서 사용한 것은 유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생각할 수가 있으며, 문인석의 역할과 맥락이 일치한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듯 하다. 이 지물의 의미는 앞서 기술이 되었듯 생전 망자의 문인으로서의 직위 표현, 조상 숭배 및 가세의 과시라고 볼 수 있다.

창 또한 32개로서 전체 지물의 8.3%를 차지하였다. 이 또한 문인석의 기본 역할

32)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및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술병 및 밥주걱에 같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흠의 경우 처럼 직위의 표현보다는 수호의 상징적 의미 또한 더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밥주걱, 술병, 술잔

밥주걱의 경우 또한 상당히 일반적인 지물로 조사가 되었다. 전체중 10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물을 가진 것 중에는 27.3% 그리고 총 조사된 동자석 중에는 21.8%로 흠에 이어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밥주걱은 그 표현 또한 상당히 다양하여 다른 여러 상황을 조합하여 그 모양의 카테고리를 정하였다. 밥주걱이 흠과 다른 점은 밥주걱을 들고있는 동자석의 경우 한쌍이 서로 다른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반면 흠을 들고있는 동자석의 경우는 예외 없이 한 쌍이 똑 같은 지물을 들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밥주걱을 방사탑(거옥대)이라는 마을의 액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탑에 재물을 모아주라는 기원의 의미로 넣기도 한다. 하지만 밥주걱과 짝을 이루어나오는 지물이 주로 술잔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동자석에 쓰인 의미로서는 망자를 살 아있는 것과 동일시한 후손의 배려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제를 지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 밥과 술의 상징으로서 제례를 지내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밥주걱과 쌍을 이루고 있는 또다른 지물은 창이 있다. 밥주걱 + 창 그리고 밥주걱 + 술잔은 거의 비슷한 수로 이루어져 있다. 밥주걱, 창, 술잔, 술병, 흠의 경우는 유교적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권위와 제례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 비록 지물이라는 것이 '망자가 생전에 좋아하던 것을 새겨넣은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음식물과 관련된 지물의 경우는 유교의 영향이 매우 강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음식물과 관련된 지물들은 실질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제례의 기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파악이 된다.

3) 부채, 붓

부채의 경우는 두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지물로 여겨진다. 하나는 유교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이다. 김유정의 경우 '부채는 선비들의 권위와 풍모,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도구이다'라고³³⁾ 하였다. 또다른 하나는 무속적 해석으로서 '부채로 부치는 것이 악한 힘을 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³⁴⁾라는 측면이다. 아쉽게도 부채를 지물로

가지고 있는 동자석은 한쌍이 모두 부채를 가지고 있어, 어느 쪽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근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전체 지물중의 2.8%인 11개 동자석만이 부채를 지니고 있었으니,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 지물로 볼 수가 있다.

붓의 경우는 8개의 동자석이 지니고 있었으며, 총 지물중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지물로서 이해가 된다. 김유정의 조사에 따르면 ‘붓은 문기를 나타내며, 묘주가 훈장이라는 직함으로 보아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 같다’³⁵⁾라 하였다. 다른 의미로서의 붓의 사용에 대한 의미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홀과 대동소이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4) 새, 꽃

유교와 불교에서 새의 역할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민속신앙의 측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솟대에서의 새의 의미를 그 근거로서 조사 하였다. 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마을의 신앙 대상물을 일컫는다.³⁶⁾ 이는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상당히 친숙한 우리나라 전통 민속이라 말 할 수 있다. 사실 솟대와 동자석의 새를 동일화 시킬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토속신앙의 측면에서 조상들의 새를 바라보는 의미를 동자석에서의 새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승박물관의 설명을 참고하면 ‘솟대의 새는 오리,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해오라기, 왜가리, 까치, 까마귀 등으로 다양하게 관념 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리가 주류를 이루며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일반적이다’라고 하였다. 방사탑의 새 또한 일반적으로 제주에서는 까마귀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³⁷⁾ 새에 대한 인간의 관념은 새가 지역에 관계없이 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영원한 이상인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생물로서 신성시 하는 의미를 부여 하였다는 것이다. 구미레는 인간이 본향은 천계이고 천계에서 높은 나무를 타고 내려와 살다가 죽고나면 다시 천계로 돌아가는데 이때 육신과 영혼을 천계로 인도하는 것을 것이 새의 역할로 보았다.³⁸⁾ 태양숭배사상 및 천등과 비를 지배함, 홍수에서

33) 김유정. 『제주의 문화 '제주인의 심성을 담은 아름다운 석상 동자석'』 2004. 제주발전 포럼.P71

34) 박정애, 서은주 『무신도에 표현된 지물의 상징연구』 시각디자인학 연구 제4호. 1999.10. P100.

35) 김유정. 『제주의 문화 '제주인의 심성을 담은 아름다운 석상 동자석'』 P71

36) 이필영. 『솟대』. 대원사.1990. P49

37) Jangsamo.com

살아남게 하는 구원의 새, 불을 극복하여 화재를 방지함 등 새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 주술적의미를 지니게 되나, 굿이나 다른 상황이 아닌 묘에 사용하는 의미로서는 육신과 영혼의 천계인도가 적합하다 하겠다. 이는 유교, 불교적인 부분보다는 무속적, 토속신앙적 의미가 강하게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꽃의 경우 연꽃은 일반적으로 불교적 입장에서는 불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통용이 된다. 그리고 무속적인 입장에서 동자석의 꽃은 산자의 염원으로 사자를 다시 살려 내는 의미가 있는 환생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³⁹⁾ 동자석에 꽃으로 표현이 된 지물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연꽃인지 다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명확치가 않다. 총 480개의 분석된 동자석 중 1.3%인 6개만이 꽃으로 된 지물을 가지고 있어 샘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꽃은 불교의 의미와 환생을 바라는 산자의 염원을 담은 무교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2. 지물을 통해 추정한 동자석의 설치 동기

총 지물중의 328개인 85.3%가 흙, 밥주걱, 술병, 술잔, 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문인석, 무인석의 의미와 역할이 동자석의 흙과 창으로서 이해되는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밥주걱, 술병 및 술잔의 경우 식사를 의미하는 밥주걱(수저)과 술잔, 술병과 술잔의 배치를 보았을 때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명확하여 보인다. 이를 토대로 유추하여 본다면, 동자석의 설립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은 유교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밥주걱과 창이 배치가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창과 밥주걱으로 된 한쌍의 동자석에서의 창 의미는 제주 외지역의 무인석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묘주의 생전의 직위 및 가세의 과시가 아닌, 망자를 위한 수호의 역할이 주가 되는 것이다. 이는 밥주걱과 흙의 구성이 전혀 없는 것에서 밥주걱과 창이 무인으로서의 직위를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준다. 즉 밥주걱과 창으로 이루어진 동자석 한 쌍은 기존의 유교적인 고정된 형식과 틀에서 민간의 조상에 대한 수호 및 봉양으로의 표현의 확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부채에서는 무교 및 유교의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지물중의 2.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무교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보더라도 전체의

38) 구미례.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P136.

39) 김유정. 「제주의 문화 '제주인의 심성을 담은 아름다운 석상 동자석」. p74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를 이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붓은 묘주의 생전 훈장으로서의 직위나 홀을 대신한 문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이 설득력이 있다.

새를 지물로서 사용한 것에서는 무교의 사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총 지물의 1.8%인 7기의 동자석에 사용이 되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동자석이 유교의 영향이 근본이긴 하나, 민간신앙 또한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가 있다. 새를 영물로 여겨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곳이 많아 특별히 제주에 한정된 문화라 내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타 지역의 문, 무인석 및 동자석을 보았을 때 제주민의 독특한 내세관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여기 소개가 되지 않은 뱀이 표현이 된 경우, 십자가로 표현이 된 경우, 방망이, 칼 모양이 나온 경우, 꽃장식이된 방망이, 방울 및 목탁의 모양 등 특이한 경우로서의 무속적, 불교적 의미의 지물등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극 소수의 경우라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는 우선 제외가 되었다.

V. 맺음말

동자석 지물의 형태 및 수량의 조사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동자석의 설치에 유교와 민간신앙 및 불교의 영향의 정도와 설치의 목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자석의 민속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석상인 돌하르방의 인지도 및 그 의의 또한 조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거 제주도민과 돌하르방의 생활속 친밀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자석은 제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친밀한 대상임이 파악되었다.

지물의 의의를 분석한 결과 동자석의 설치 동기 및 그 역할 있어서 유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틀에 박히지 않은 석상의 제작방법 그리고 지물을 표현하는 방식의 외형적 측면에서 제주도 외 지역의 정형적 석상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문, 무인석이 가지는 지물의 상징성이 제주의 동자석에서는 민간 사상이 반영된 모습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내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신앙적 측면이 가미된 지물들도 일정부분 발견이 되어 제주의 석상 동자석은 유교의 영향아래 제주의 토속성이 가미된 고유의 석상으로서 이해가 된다.

결론적으로 동자석 제작의 사상적 기저에는 유교의 영향이 가장 크게 깔려있으며,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의 무교 그리고 불교가 일정부분 가미가 되었다. 지물로서 파악한 동자석의 역
는 묘주의 생전 권위에 대한 표현, 조상 숭배로서의 제례, 묘주의 수호가 주를
는 것으로 여겨지며, 꽃과 새에서는 극락왕생을 비는 후손의 마음이 내포되어
. 현실적 측면으로서, 유교적인 지물중 문인석 측면의 특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의 과시 부분 또한 무시하지 못할 측면으로 이해가 된다.

자석은 제주인의 향기를 담은 조형물이다. 화려하지 않으며, 세속 되지 않았고
히 그리고 기꺼이 후손의 마음을 담아 망자의 영원한 벗이 되어주는 굳건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원을 내포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
겨진다.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제 역할을 수행
= 없는 동자석들의 아쉬움은 전통사상, 즉 뿌리의 부재라는 삶의 가벼움으로 우
게 돌아올 것이다.

〈에필로그〉

어쩌면 전공과는 상당히 무관한 분야이나, 제주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
여 정확하게 그리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문화기술 개발의 의도에서 이 연구가 시작
되었다. 물론 문화 전공자와의 연계 연구가 더욱 손쉽고 내용의 전문성 또한 더 있
수 있으나, 문화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이 기술적인 접근만을
다는 것은 단순 기술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 부족하나마 연구를 진행
였다.

차후 진행될 연구로서, 우선 더욱 사실적이며 가치 있는 문헌 자료 및 동자석상의
료를 확보할 것이며, 그에 대한 활용으로서, 차세대 웹 기술인 Ontology 이용하여 정
하고 효과적인 정보 구축, 그리고 전달로 인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
3D Obje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의 동자석 이미지를 가장 실제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하여, 시각적 이해의 정도를 높임으로서 정확한 영상의 전달측면 및 문화자원 보
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 자원을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 및 활용 방안이 동
에 연구 되어질 것이다.

〈Abstract〉

A Culture would be formed as completed contents by mixing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outsiders and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of insiders. Moreover, a culture understood by outsiders is generally approached by objective knowledge and planned image, but an understanding on culture of insiders is not normally appreciated from the image but as the object of the real history, tradition, sense of value and experience. Dolhareubang has acquired a solid image of Jeju Island. In reality, there is no insufficiency as regarding Dolhareubang for the most successful image in Korea. However, in the planned success as an image, the lack of expressing and containing identification of Jeju islanders is perceived.

In this research, by comparing Dolhareubang with Stone Boys which are another representative stone statue in Jeju, the important aspects of imposing value on expressing traditional culture are analyzed. Moreover, by analyzing the shape carved in the chest or belly of stone boys, the implied meaning and ideology of setting up stone boys are appreciated.

Key Words: Culture, Dolhareubang, Stone Boys, Jimul(Holding things), Confucianism, Buddhism, Shamanism, Religion of People.

〈참고서적〉

- 강상배.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제주, 제주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제주도 연구회 제8차 학술대회, 제주도 연구회 & 제민일보사, 1992
- 강정효. 『화산섬, 돌이야기』, 도서출판 각, 2000
-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 연구.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제주대 탐라문화 10, 1990
- 구미례.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출판사, 1990(edited)
-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2003
『제주의 문화 '제주인의 심성을 담은 아름다운 석상 동자석』, 제주발전 포럼, 2004
-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 해부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1981
- 박정애, 서은주 『무신도에 표현된 지물의 상징연구 시각디자인학 연구』, 제4호, 1999.10.
- 우종구.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연구 "제주 고유의 민속 소재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03
- 유홍준. 『제주 돌담과 돌하르방』 Internet media company, Joins. 2003. 중앙일보. 2003.12.11
- 이필영. 『솟대』, 대원사, 1990
- 조오순. 『한몽 석상에 나타난 복식 비교연구』, 창원대학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1993
- 현춘식. 『제주의 사적 문화재 고찰, 제주이의 삶』, 제주향토 무크, 제주역사 연구회, 1989
- Hunter W.C. "Commodification of Jeju Island's Culture Image: Standing Stones". Island of The World III. 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 Taiwan, 2004

〈참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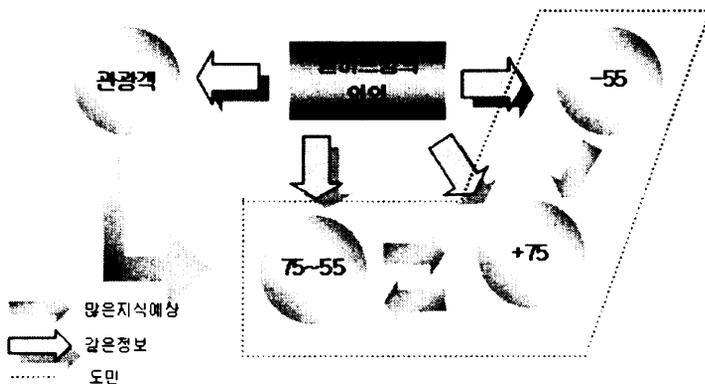
- www.Jangsamo.com (장승사랑 모임)
- www.JTnews.or.kr
- www.nfc.co.kr
- www.traditionkorea.com(디지털 전통문화신문) (장원섭)
- www.traditionkorea.com/museum/03.htm(디지털 전통문화 신문)
- Http://encycl.yahoo.com
- www.yonhapnews.co.kr/

* 이논문은 DCRC의 지원에 의하여 제작이 되었음.

〈논문에 사용된 그림, 도표 및 사진〉

〈표1〉75세 이상 제주 도민 인터뷰 결과

현재 돌하르방의 인지	100% 알고 있음	
처음 본 시기	70%: 35년 이내	30%: 35년 이전
제작 의미	55%: 의미를 모름	45%: 액운을 막음
과거 주술적 활용경험	100%: 전혀 없음	
과거 제주 서민들의 삶과 돌하르방과의 연계성	100%: 아무 관계가 없음	



〈그림1〉 돌하르방에 대한 정보의 기대 현상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2) 지물의 종류 및 비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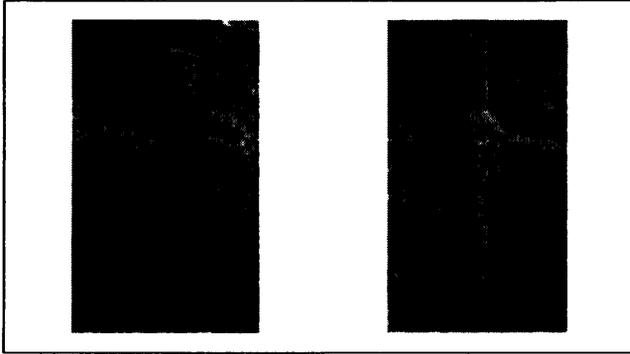
장 소	수 량	자료의 현황
개별 무덤가	20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제주 목석원	130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민속 자연사 박물관	28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제주 국립 박물관	6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세종 돌 박물관	450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호암 미술관	38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제주 돌 박물관	15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제주 대학교	8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기타 장소	20기	사진 + 텍스트 분석 자료
총계:	715	사진 5000 여장 + 텍스트 자료

(3) 지물의 종류 및 비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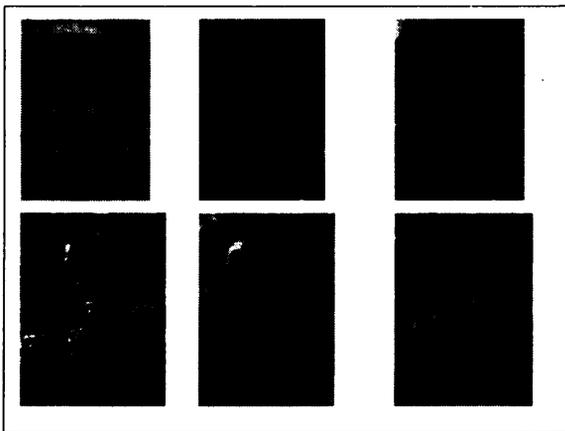
형태 (모양)	개수	비율(지물간 비율 %)	총비율(전체비율)
홀	148	38.5	30.8
압주격(순가락)	105	27.3	21.8
창	32	8.3	6.6
술잔	28	7.3	5.8
술병	15	3.9	3.1
부채	11	2.8	2.3
붓	8	2	1.7
새	7	1.8	1.5
꽃	6	1.5	1.3
총계:	360	총계: 94%	총계: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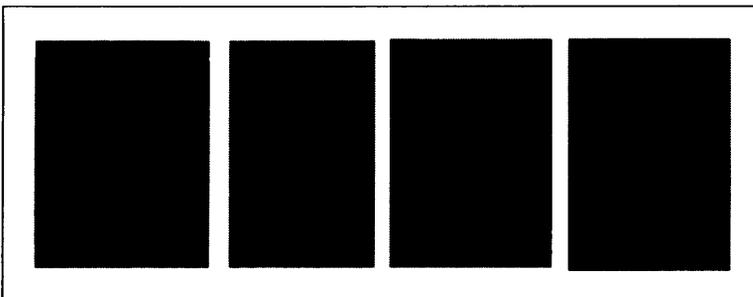
사진1) 밥주격 및 창과 유사한 모양의 붓



〈사진2〉 홀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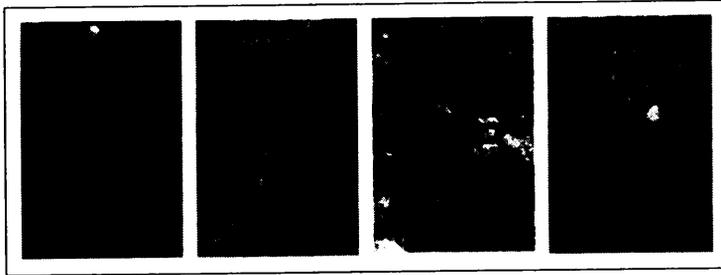


〈사진3〉다양하게 표현이 된 밥주걱(수저)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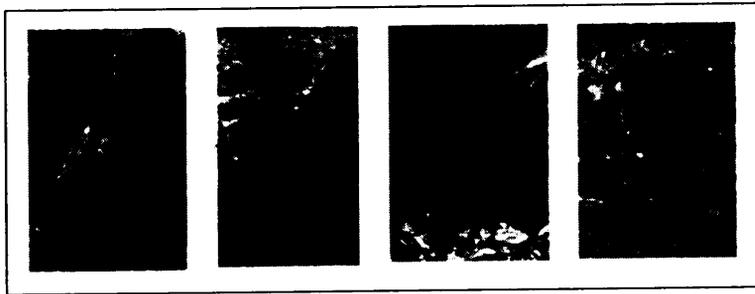


〈사진4〉 창을 나타내는 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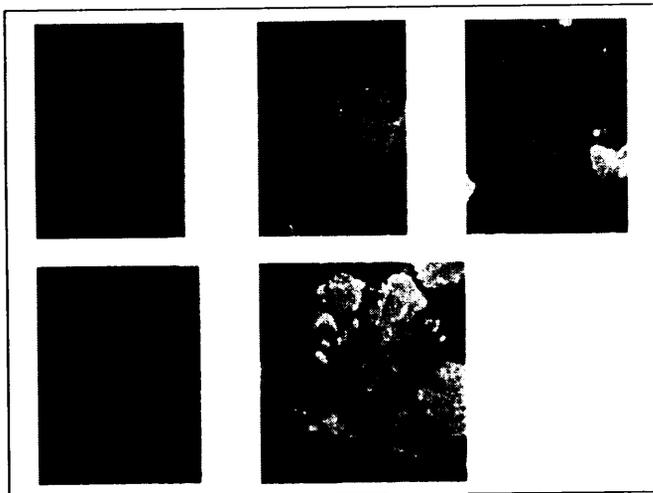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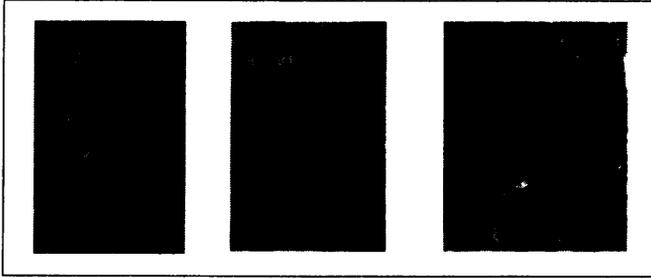
〈사진5〉 술잔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사진6〉 술병을 나타내는 지물의 예



〈사진7〉 부채를 표현한 지물의 예



〈사진8〉 새를 표현한 지물의 예



〈사진9〉 붓과 꽃을 표현한 지물의 예